

#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과정과 중조연합사령부의 구성

박영실 (한국학중앙연구원)

1. 서론
2.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준비, 결정 및 지원군 명의 논의
3. 중조연합사령부의 구성 논의, 과정 그리고 갈등
4.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에 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 발표
5. 북한과 중국의 중조연합사령부에 대한 입장
6. 결론

## 1. 서론

1992년 8월 24일 중국 북경에서 한국과 중국이 한중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1953년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약 40여년이 지나서야 한국과 중국의 수교가 시작된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의 몰락이 두 국가 사이를 연결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으로 전쟁에서 적으로 전투를 벌였던 국가들이 수교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국전쟁기 중국인민지원군<sup>1)</sup>은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을 건너 25일 전쟁에 참전하였다. 중국의 참전결정은 단순히 사회주의 국가였던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이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이는 북한과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에 기인한 것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양국 간 협조 관계의 시작은 1930년대 초로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공내전 동안 북한의 지원은 중국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개전하자마자 중국이 즉각적 개입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중

1) 중국인민지원군이라는 명칭은 중국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실제로 중국인민지원군은 정규군이었으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군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나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용어를 쓰기로 한다.

국 내부에서도 한국전쟁의 참전에 대해 찬반론이 제기되었고, 북한도 전쟁을 개시한 직후 바로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북한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바뀐 9월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정치국 긴급회의에서 소련과 중국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중국도 한국전쟁 참전에 대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에서 논의를 벌였고, 결국에는 마오쩌둥의 의사가 관철되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연구는 전쟁 서술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 본고는 중국의 참전과 중조연합사령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준비, 결정 및 지원군 명의 논의, 둘째, 중조연합사령부의 구성 논의, 과정, 그리고 갈등, 셋째, 중국인민지원군의 전쟁 참전에 관한 중국정부의 공식적 발표, 마지막으로 북한과 중국의 중조연합사령부에 대한 입장이다. 중국인민지원군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10월 25일부터 첫 전투를 시작하였지만 중조연합사령부는 12월 초순이 되어서야 성립되었다. 두 국가가 같은 적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동작전은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전쟁초기 중국인민지원군과 북한군은 각각의 사령부가 전쟁을 개별적으로 수행했다. 따라서 전투 시 중국군과 북한군 사이의 공격 사건도 다수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중조연합사령부의 구성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 2.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준비, 결정 및 지원군 명의 논의

중국은 6월 26일자 『인민일보』에서 ‘남조선 괴뢰국방군이 25일 새벽 38선을 돌파하였다’며 한국전쟁의 개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쟁 준비를 했다. 우선, 동북변방군을 구성해서 직접적인 군사대비태세를 취한 것과 중국 국내에서 항미원조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7월 7일 오후,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 저우언라이는 국방 보위 문제에 관한 제1차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즉시 중원(中原) 지역의 국방기동부대 제13병단(아래 제38, 제39, 제40군)을 북상, 조중변경지역에 집결해 동북변방군을 조성하고, 이 병력으로 하여금 동북변방을 보위하고 필요시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책임”을 갖게 하였다.

또한 7월 13일 군사위원회는 ‘동북변방보위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7월 하순 제38, 제39, 제40군이 선후하여 압록강변에 도착하였고, 이미 동북에서 경작을 하던 제42군과 포병 제1, 제2, 제8사단 역시 명령을 받아 랴오둥(辽东)반도의 통화(通化)일대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위의 3개군과 함께 동북변방군으로 편입되었으며, 당시 총병력은 25만 여명이었다.

한편 중국 국내에서 벌어진 항미원조 운동의 일환에서, 마오쩌둥은 전국적으로 사상동원을 진행하기 위하여 7월 10일 국내에 ‘미국의 타이완과 조선 침략에 대한 중국인민 반대 운동 위원회(中國人民反對美國侵略臺灣, 朝鮮委員會)를 조직했다. 이 단체는 7월 14일 ‘전국 각지에서 미국의 타이완과 조선에 대한 침략 반대 운동 주간’을 실시했다. 1950년 10월 참전 예정 부대는 ‘항미원조 보가위국을 위한 지원입조에 관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당시 마오쩌둥과 주더(朱德) 앞으로 신청서를 써서 지원군 가입을 희망한 군인이 제38군의 338연대만 해도 3천 명 가까이 되었다. 이렇게 중국은 한국전쟁이 개전하자마자 전쟁준비를 진행했다.

한국전쟁 참전논의를 위해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10월 보름동안 마오쩌둥 주재 하에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10월 3일 박일우는 베이징에서 마오쩌둥을 만나 중국에 대해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는 김일성, 박헌영이 공동으로 서명한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10월 4일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군대 파병을 통한 군사적 원조문제에 대해 토의했다.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잠시 북한에 대한 파병을 유보하자는 주장과 군대 파병을 통해 적극적으로 북한을 원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결국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은 지원군(志願軍)의 명의로 참전했는데, 이것은 전쟁이 중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지원군의 명칭은 지원군(支援軍)과 지원군(志願軍)의 명칭 가운데 황옌페이(黃炎培)가 제출한 명칭이 채택되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이름으로 조선에 파병하는 것에 대해 마오쩌둥은 1950년 10월 8일 ‘동북 변방군을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이름을 바꾸고, 신속하게 조선으로 출동하여 조선 동지들과 함께 침략자들과 싸워 영광의 승리를 쟁취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 3. 중조연합사령부의 구성 논의, 과정 그리고 갈등

중조연합사령부의 구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조선에 입북한 후 중국인민지원군의 지휘권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소련은 중국군이 조선 입북 전에 이미 작전지

휘권은 중국이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작전지휘권 문제는 최초 스탈린이 1950년 10월 1일 중국군의 파병을 권유하는 전보에서 “중국지원군은 중국군지휘관이 지휘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고, 전쟁의 전개양상을 고려할 때 지휘권이 중국군에 귀속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은 달랐다. 10월 8일 박일우는 선양(沈陽)에 도착하여 중국의 참전을 요청함과 동시에 중국군의 지휘본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일우는 ‘현재 김일성이 덕주에 있으며, 그가 ‘중국군의 지휘본부가 덕주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것은 중국군과 북한군의 작전통수권과 관련된 문제였다. 즉 적군이 북상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중국에게 파병을 요청하여 북한군의 방어를 돕도록 하면 군대의 지휘통수권은 자연스럽게 북한지도부에 장악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에 10월 14일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에 입북하기 전 저우언라이는 스탈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은 지원군의 형식으로 조선에 들어가 작전을 하는데, 조선인민군과 협동으로 작전을 할 때, 쌍방의 지휘관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문의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얻기를 원했다. 이것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작전 지휘권이 북한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10월 21일 평더화이와 김일성이 대유동에서 처음 만났을 때, 쌍방은 모두 군사지휘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했다. 결국 평더화이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지휘권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였다.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중조연합사령부가 구성되었을까. 제1차 작전기간 중에 평더화이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협조가 부족하고, 언어가 다르며, 지형에 대해 익숙하지 못하고, 북한의 군대와 인민들이 퇴각하면서 도로를 봉쇄하는 등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작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수차레 마오쩌둥에게 보고했다. 또한 남진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인민군의 오인으로 공격을 받기까지 하였다. 예를 들어 1950년 11월 4일 지원군 제39군은 박천 부근에서 미 제24사단을 포위 공격했으나, 순천을 향해 진격하던 인민군 탱크사단이 39군을 오인하여 공격하는 바람에 미군이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1차 전역 이후 중국과 북한 사이에 연합사령부 구성이 논의되었다.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과 김일성은 지원군과 인민군간의 작전을 협조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11월 7일 평더화이는 박일우로 하여금 만포(滿浦)로 가 김일성을 만나보

도록 하고, 중·조 양군의 배합작전 문제와 포로정책 등의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협의 과정 속에서도 최종 결정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제2차 전역 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11월 13일 저우언라이는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연합사령부 문제에 대해 스탈린이 지지해주기를 요청하는 전문을 발송하였다. 스탈린은 전보를 받고 3일 후인 11월 16일 중국이 통일 지휘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답전을 전달했다. 동시에 이 뜻을 김일성과 슈티코프에게 전보로 보냈다.

결국 12월 7일, 평더화이와 김일성이 북한에서 회담을 하고 수일 내로 중·조연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8일 저우언라이는 중공중앙을 대표하여 중·조연합사령부의 설치에 관한 전문을 작성하였다. 결국 12월 상순, 연합사령부가 창설되고 제3차 전역부터 중국군이 한국전쟁의 작전지휘권을 장악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성립된 중조연합사령부에서 중국과 북한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3차 전역에서 38선 돌파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북한 지도부 및 소련 군사고문단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 4.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에 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 발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국내 및 국외에서의 선전을 중요시했으며, 이 때문에 참전초기에도 지원군의 명칭에 대해서도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과연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을 국내와 국외에 어떤 과정을 통해 소개하였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중국인민지원군에 관한 보도는 마오쩌둥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루어졌다. 마오쩌둥은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에 잠입한 10월 19일 당시에 도 지원군의 참전을 발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당시 중앙인민정부 신문총서서장 후차오무(胡喬木)에게 외국통신사가 지원군에 대해서 반응을 하더라도, 4~5일간은 <참고소식(參考消息)>에 등재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1950년 10월 25일 시작되어 11월 5일 종결된 1차 전역은 성공적인 승리였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1차 전역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다. 11월 5일 마오쩌둥은 평더화이와 가오강에게 연합사령부 명의로 전쟁 상황을 발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인민군총사령부 명의로 전쟁상황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 전보(戰報)가운데 몇 마디쯤은 중국인민 항미원조 보가위국 지원부대가 참가했음을

언급해도 된다고 지시했다. 그리고 11월 7일 지원군이 정식으로 압록강을 건너지 18일 후, 신화사가 조선신의주 방송국 광고의 형식을 인용하여 처음으로 “중국인민 지원부대”의 참전소식을 보도하였다.

하지만 1차 전역 이후 11월 17일 마오쩌둥은 국내 뉴스보도에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부대가 함께 지면에 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민군만 언급하고 중국인민지원부대를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사실에 반드시 지원군을 격려하는 글을 실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것은 이 시점부터 중국인민지원부대의 참전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1월 25일에서 12월 24일까지 진행된 2차 전역에서 마오쩌둥은 12월 6일 평양 시내에 진입한 사실을 7일 『人民日報』에 게재하도록 지시하였다. 1950년 12월 31일에서 1951년 1월 8일까지 진행된 3차 전역에 대해서는 1월 5일 중국인민지원군과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사실과 함께, 서울해방을 축하하는 사실을 인민일보에 실도록 지시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참전 초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을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였다. 그리고 매번 전투가 끝나고 그 소식을 『인민일보』에 보도할 때마다 마오쩌둥이 사실과 기사내용을 지시했고, 보도 전에 반드시 확인 수정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사회주의 국가의 언론통제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중국은 대내적 뿐만 아니라 대외적 이미지도 고려해 더욱더 주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 5. 북한과 중국의 중조연합사령부에 대한 입장

중국이 11월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을 공식적으로 보도하였지만, 과연 중조연합사령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을까. 중국이 전쟁수행과정에 있어서 중조연합사령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북한도 중조연합사령부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첫째, 두 국가 모두 중조연합사령부의 구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은 처음에 참전을 결정했던 당시부터 지원군의 명칭을 둘러싸고도 논의를 했고 이것은 당시 대외적으로 중국의 참전 자체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중조연합사령부가 구성되어 전쟁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북한과 중국이 함께 전쟁을 일으켜 확대한 것으로 다른 국가들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역시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작전지휘권을 중국에게 넘겼기 때문에 북한에서 김일성의 위상이 저하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둘째, 중조연합사령부의 구성을 대외적으로 알린다면, 그것은 이승만이 미국의 앞잡이로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 역시 중국의 하수인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조연합사령부의 구성은 북한의 무모한 전쟁개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은 전쟁을 개시하면서 소련과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설마 중조연합사령부가 구성되어 자국이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정전회담에서도 중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긴다. 정전회담을 준비 중이었던 1951년 7월 4일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중국 쪽은 이번 회담의 주인이니 동지는 책임자를 한 사람 파견하고, 약간의 업무인원과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빨리 개성지구의 연합사령부로 가서, 참모장 세광(解放) 동지와 회담 장소 및 개회업무를 준비해 주시오. 그곳에 숙소가 없으면 반드시 천막을 가지고 가시오. 쌍방의 회의인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과 회의 설비를 반드시 챙겨가시오. 7월 8일 이전에 일체의 일들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시오.” 라는 전문을 발송함으로써 정전회담에서도 중조연합사령부의 실제적 주도권은 중국군에게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이 각각의 지휘체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초기 전투에 비해 중조연합사령부가 수행했던 3차 전역은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을 당해내기는 힘들었으며, 또한 정전회담이 2년 이상 전개되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두 국가 각각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상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중조연합사령부를 구성하여 전쟁을 수행한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 6. 결론

중국은 한국전쟁이 개전하자 바로 동북변방군을 구성하였다. 동북변방군의 조직은 중국 공산당 중앙이 장기적인 판단에서 결정한 주도면밀한 대비였다. 중국은 동북변방군의 조직으로 동북 국경지역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동북변방군이 바로 중국인민지원군

으로 개편되어 위급한 상황에서 즉각 전쟁에 참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항미원조 운동을 진행해 국내의 민심을 모았다. 이러한 중국의 전쟁준비는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는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참전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며 지원군 명기도 중국내부에서 외부의 시선을 인식해 지원(志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중국은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에 입북했을 당시에는 지휘권을 가지고 고민했지만, 이후 중조연합사령부를 성립시킨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에서 북한을 제치고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하지만 전쟁 수행과정에서 갈등이 나타나는 등 사령부 성립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선전을 중요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의 공식적 발표는 마오쩌둥의 직접적인 계산된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중조연합사령부의 구성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최근에 와서야 중국, 소련측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밝혀졌다. 하지만 중조연합사령부 구성의 공개화에 대해서는 두 국가 모두 망설였으며,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조연합사령부가 구성되어 진행된 3차 전역 이후의 전투에서는 현대무기로 무장한 미군을 당해낼 수 없었다. 하지만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하여 중조연합사령부가 전쟁을 수행한 것은 두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었다. 그것은 북한에게는 전쟁 이전의 경계선을 유지할 수 있게 했고, 한편 중국에게는 한국전쟁에 참여함으로써 현대화전쟁의 경험과 사회주의 국가를 도왔다는 명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은 남·북 양측의 전쟁이기 보다는 미국과 중국 주도의 전쟁이었으며, 전쟁의 개시는 북한이 시작하였지만, 전쟁수행 과정과 전쟁의 마무리는 중국이 주도하였다. 그리고 전쟁수행에 있어서 중조연합사령부의 구성은 필연적이었다.



## 참고문헌

- 『人民日報』, 1950年 6月 26日.
- 『人民日報』, 1951年 1月 5日.
- 『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1冊, 中央文獻出版社, 1987年.
- 『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2冊, 中央文獻出版社, 1988年.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2002.
- 范煥清 主編, 『支援抗美援朝紀實』 1,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00.
- 徐焰, 『毛澤東與抗美援朝戰爭』, 北京: 解放軍出版社, 2003.
- 姚旭,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한 현명한 정책, 중국인민지원군이 출국하여 참전한 30주년을 기념하며」, 『중소연구』, 8권 4호(1984).
- 이종석, 「한국전쟁 중 중·조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군사』 제44호, 2001.
-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1.
- 장덕순, 「조중인민의 반일공동전선실현의 역사적 지위」, 『역사과학』, 주체 94(2005)년 (루계 제1호).
- 朱建榮(저)/ 서각수(역),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역사넷, 2005,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저)/ 박동구(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海泼, 『志愿军战事珍闻全记录』, 北京: 军事科学出版社, 2005.
-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한국전쟁과 중국』 2, 2002.